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 산불 예방 문화 확산 '앞장'

‘제20회 순창장류축제’ 17~19일 참여형 프로그램·공연·먹거리 등 풍성

전통발효의 고장 순창에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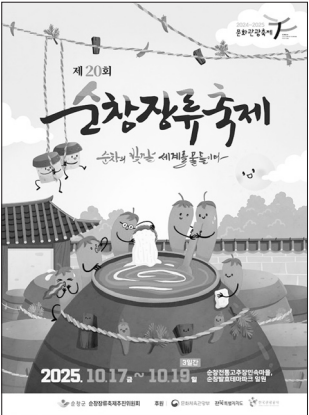
올해 20회를 맞이한 축제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세대별 참여형 프로그램과 공연, 다채로운 먹거리로 꾸며진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순창 고유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황금메주를 찾아라’, ‘성년을 맞은 너와 나’, ‘정주왕을 찾아라’, ‘고추 꼭지 빨리 따기’ 등으로 구성돼 아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 2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놀이와 ‘캐치! 타니링’ 공연, 청소년 영화제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볼거리도 풍성하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고추장불고기 등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지역 농



제20회 순창장류축제 포스터

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함께 열린다.

축제장은 대화용기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등 친환경 운영에도 힘

썼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11개 읍면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가 확대 운행되며, 공실운동장 전용 셔틀버스도 별도 운행된다.

경찰, 소방, 가스,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해 방문객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발효테마파크와 광이공원, 민속마을 일원에는 국화 3만여 본이 장식돼 가을 정취를 더하며, 하트형 조형물과 장독대 포토존 등 국화 포토가든은 관람객들에게 인생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순창장류 축제는 20주년을 맞아 세대를 잇는 참여형 축제로 준비했다”며 “순창의 깊은 맛과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순창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냉천마을·조월마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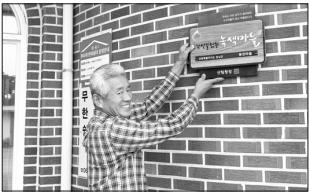
임실군 오수면 냉천마을과 신덕면 조월마을이 산림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2025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범국민 참여형 산불 예방 운동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 근절을 서약하고, 마을 단위로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실천한 곳을 매년 심사를 통해 우수마을로 선정하고 있다.

냉천마을과 조월마을은 주민 전원이 불법 소각 근절 서약에 동참하고, 영농 부산물은 공동 수거·파쇄 처리하는 등 마을 공동체 차원의 자율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교육과 자체 순찰 활동을 이어온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우수 녹색마을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인증 현판을 설치하고,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준비한 소정의 물품을 지원 받게 된다.

군은 추석 연휴 전후 성묘객 증가,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심 민 군수는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선정은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임실군의회, 임실N치즈축제장서 민원상담소 운영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1회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해 총 2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마련했으며, 의원과 직원 전원이 참여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접수된 주요 민원은 △행사장 교통 대책 마련 △치즈 판매장 혼잡으로 인한 대기시간 장기화(매장 확장·계산대 추가 요청) △여성 화장실 배치 확대 △응급처치부스 부족 및 위치 안내 미흡 △주차장 부족 문제 △국화 관람료 징수 필요성 등이다.



군의회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축제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장종민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감한 불편과 건의사항은 군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삼·홍삼음료 HACCP 획득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부터 인삼·홍삼음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취득했다.

HACCP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삼·홍삼음료 HACCP 인증 획득을 통해 순창군 홍삼제품의 위생과 품질 안전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027~28년도 국가 예산 선제적 대응 위해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15일, 2027~28년도 국가 예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1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성호 부시장 주재로 실·국·소장,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여, 부서별 발굴 사업 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선 8기 주요 성과사업의 고도

화와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목표로 총 60건 총사업비 6,534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에는 △지리산권 치유관광·사회재활 거점 구축(308억원) △향토박이숙사 건립(198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한파우예술평화지구 조성(500억원) △지리산 휴 리조트 단지 조성(800억원) △공공의료 거점 K-UAM 시범사업(2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100

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10억원) △범사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00억원)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2,044억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남원시는 이번 1차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시화 토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추가 신규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초혁신경제 등 가시적 성과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민선 8기 성과사업의 고도화와 정부 중점 투자 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원푸드 페스티벌’ 16~19일 개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 남원 국제드론제전에서 관람객들과 소비자들에게 지역 특산물 백향과(Passion Fruit)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One Food Festival 축제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입구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 마켓존에서는 백향과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신제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백향과맛 애쉬비, △백향과 뷰티 젤리, △백향과 파이,

△백향과 샌드 등이 있으며,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맛보며 제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체험존은 백향과를 활용한 요리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백향과 쿠키클래스」와 「남원 농특산물 활용 게임」이 운영되며,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원푸드 페스티벌은 남원시가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가치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며, 특히 국제드론제전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의료원 응급실기반자살 시도자사후관리 공모 선정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사진))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제3차 공모 심사 결과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 위험도가 큰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점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이외에 초기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와 병원 기반단기 사후관리를 제공한 후, 지역·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오진규 남원의료원 원장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독감 예방접종 실시

임실군이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대비해 지난날 22일 한 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14개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료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 이민자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독감 유료 접종 비용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시 1만 원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